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토론

양동민 교수(전북대학교)

1. 개요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18,000여 개의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고 있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과 체계를 수립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현안입니다.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발표문에 설명 또는 제안되어 있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협업 관리’, ‘기록관리 프로세스’, ‘관리 기준항목표’, ‘기술지원센터’ 등의 전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구체화, 기관들과의 협의, 기술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원 범위 등은 심도있게 논의, 협의 및 연구를 통해 실체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몇몇의 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프로세스(준비등록 -> 기관기록관리 -> 영구기록관리)를 시범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토론

발표문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에 대해 궁금한 점과 개인적으로 행정정보데이터세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궁금점도 적었습니다.

가. **에물레이션의 경우 보존포맷(문서보존포맷, 장기보존포맷)은 어떻게 대응이 될까요?**

마이그레이션의 경우 문서보존포맷은 dump file 자체 또는 siard 파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장기보존포맷은 NEO2 또는 향후 개발될 패키징 방식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에물레이션의 경우는 보존포맷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에물레이션이기 때문에 포맷 정책이 필요없을 수도 있고, 에물레이션 방식도 시스템 이미지라는 파일이 생성되기 때문에 포맷 정책에 포함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나. **웹기록물과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분류 기준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일반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는 웹기록물이며, 그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DB 안에 축적되어 있는 기록 역시 행정정보데이터세트입니다. 때문에, 이 기록에 대해 웹기록물로 관리하느냐, 행정정보데이터세트로 관리하느냐에 대한 구분 또는 분류 기준이 필요합니다. 웹기록물과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완전히 구분하던지, 아니면 웹기록물 분류 기준과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분류 기준을 각각 만들어서 해당되는 기준에 포함되면 양쪽 모두의 보존포맷 형태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기술지원센터는 어떤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기술지원센터는 현재의 추세보다도 훨씬 더 전자기록의 활용도가 높아져 기록관리 되어야 하는 기록 유형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고 판단됩니다. 한편으로, 기록관리 교원으로 학생들에게 기록의 개념 및 본질뿐만 아니라 현재의 기록관리에서 필요한 학문과 기술을 포함한 강의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기록지원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원 기술 분야가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센터의 모습(지원 기술 분야, 인력, 조직 등)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